



# 보도자료



보도일시	<b>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</b>		총 2쪽
배포일시	2021. 7. 6.(화)	담당부서	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보호환경과
담당과장	김성벽(02-2100-6291)	담당자	장유남 사무관(02-2100-6292)

## 여가부, 섯다운제 개선 방안 적극 논의



- 게임 이용환경 변화에 따라 관계부처 등과 함께 논의해 나갈 것 -

- 여성가족부(장관 정영애)는 게임 이용환경 변화에 따라 청소년 인터넷 게임 건전이용제도(일명 ‘섯다운제’)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6일(화) 밝혔다.
- 섯다운제는 2011년 당시 청소년의 수면권, 건강권을 보호하고 게임 이용을 둘러싼 부모-자녀 간 갈등예방, 건강한 게임이용습관 형성 등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에 따른 역기능 예방을 위한 제도로 도입·시작되었다.
  - 하지만, 그간 제도 실효성 등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고, 모바일 게임 이용 증가 등 환경변화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변화를 위한 시도를 하였으나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.
  - 친권자 등이 요청한 경우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섯다운제 적용을 제외하는 일명 ‘부모섯택제’를 2014년 11월 정부 입법으로 19대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되었고,
  - 20대 국회 개원에 따라 2016년 12월 ‘부모섯택제’를 정부 입법으로 재추진하였으나, 이 또한 학부모 단체의 우려\*와 국회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개선되지 못하였다.

\* 가정별 제도적용 시간대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부모-자녀 갈등 조장 우려 등



- 최근 게임이용환경이 변화되고, ‘셋다운제 폐지(전용기의원안, 허은아 의원안)’, ‘부모선택제 도입(강훈식의원안)’ 등 국회에 법안이 발의된 만큼, 여성가족부는 국회 논의과정에서 청소년 보호와 다양한 집단의 의견이 균형 있게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이다.
- 또한, 게임업계, 이해관계자, 전문가,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규제 챌린지\* 회의도 개최(7월 말)하여 적극적인 개선책과 함께 청소년 인터넷, 게임 과다 이용 예방을 위한 상담 등 청소년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.
  - \* (개 념) 민간이 제안한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를 도전적인 방식으로 최대한 개선 노력  
 ⇨ 민간·정부가 협력하여 주요국 대비 낮거나 동등한 규제 수준에 도전
- 여성가족부 최성유 청소년정책관은 “마인크래프트 논란과 별개로 2014년부터 ‘셋다운제 개선’을 계속 검토해왔다.”라면서,
  - “청소년 보호제도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노력을 하는 한편, 인터넷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청소년 보호 주무부처로서 최선을 다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

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"공공누리 제1유형(출처표시)"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.